

광주송정도서관, 소외계층

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지원

광주송정도서관이 지난 3월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.

14일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피해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미혼모 가정 학생, 지적장애인 등 소외계층별 맞춤형 교육·문화 과정으로 이뤄졌다.

효과적 지원을 위해 ▲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광주지부 ▲이주민영유아돌봄센터 ▲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 ▲편한집 ▲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지부 ▲공동생활가정 등의 단체와 협력했다.

광주송정도서관은 학교폭력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힐링 공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.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한글 수업 및 책 읽어주기 교육을 지원해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. 또 미혼모 가정에 제빵 수업을, 지적장애인 대상으로는 한글 및 제빵 수업을 운영해 자립생활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.

/김명란 기자

송정도서관, 소외계층 위한

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

맞춤형 교육·문화 과정

광주송정도서관이 지난 3월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.

14일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피해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미혼모 가정 학생, 지적장애인 등 소외계층별 맞춤형 교육·문화 과정으로 이뤄졌다. 효과적 지원을 위해 ▲학교

폭력피해가족협의회 광주지부 ▲이주민영유아돌봄센터 ▲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 ▲편한집 ▲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지부 ▲공동생활가정 등의 단체와 협력했다.

광주송정도서관은 학교폭력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힐링 공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.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한글 수업 및 책 읽어주기 교육을 지원해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.

가톨릭재본부

광주송정도서관 '여름독서교실' 진행

기후변화와 환경 주제

광주송정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1~3학년생을 대상으로 오는 27~30일 '기후변화와 환경'을 주제로 '2021년 여름독서교실'을 운영한다.

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'2021년 여름독서교실'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.

'2021년 여름독서교실'은 기후변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. 참

여자들은 '날씨가 이상해요(이현숙 저)', '플라스틱이 온다(빅토리아 퍼즈 저)' 등 관련 주제도서를 읽은 후 확장 활동과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.

광주송정도서관은 주변 특색을 살려 ▲송정공원과 연계되는 숲 체험 활동 ▲자연물을 이용한 모빌 만들기 ▲놀이 활동을 통한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대로 알아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. 접수는 13일부터 광주송정도서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. 코로나 단계에 따라 기간 및 내용 등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.

/이만석 기자